우리가 자유스럽게 살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못 믿기 때문입니다

☞ 17면에서 계속

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그 자체의 종자를 발현해 내는 겁니다, 지금. 발현해 내는데에 우리 주인공이라는 것은 쥘래야 쥘 수도 없고 볼래야 볼 수도 없고 그런 까닭에 종자 아닌 종자다. 그런데 "종자 아닌 종자를 심어서 키우는 데는 어떻게 해야 잘 큽니까?" 하고 물으니깐 "방귀씨를 갖다가 심어서 키우려면 방귀털을 먹여야지." 이러더란 말입니다. "그 방귀털을 먹이는 것도 또 더 먹여도 안 되고 덜 먹여도 안 되느니라."

우리가 다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런 대답을 하려면 연세가 많이 잡수신 어른들한테는 합장을 곱게 하고 하고, 좀 젊은이들한테 그 답을 하려면 또 소리가 나게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답을 그렇게 소리 나게 하고도 한 번도 벽 하나 손바닥으로 치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장벽 하나 치지 못했다. 하하하.

구경경지에 이르러야 된다 하시는데

질문 : 저는 어려운 일 있으면 큰스님을 부르고 찾게 됩니다. 그런데 큰스님 법문에 구경경지에 이르러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같이 세속에 있는 사람도 그런 경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답변 : 구경경지란 삼세를 한데 포함해서 하나로 돌아가는 원리를 알고 그 하나도 공해서 둘 아니라는 걸 알 때에 비로소 구경경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생전에 공부할 때에 구경경지에 이르러야만 된다 이겁니다. 구경경지에 이르러서도 우리가 항상 그 도리를…, 즉 말하자면 주인공 찾으면서 나를 또 덧붙이기로 이름을 갖다 거기다가 붙이고 그랬다는데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지만 그건 이름이지 실체는 아니죠. 그러니까 주인공, 자기 주인공만 열심히 하면 그 주인공에는 다 같이 합해져서 있다 이 소립니다.

딴 이름 부를 게 없죠. 때로는 그렇게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자기 뿌리와 내 뿌리가 동일하게 같이 돌아가는데, 제자다 스승이 다 하고 같이 돌아가는데 어찌 그게 둘이겠습니까? 자기와 나와. 그러니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서 인연이 되고 인연이 됨으로써 우리가 같이 한 방석에 같이 앉을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잘, 생활 속에서 잘 리드해 가면서 잘해야만이 사자좌에 앉게 될 겁니까?

누구라고 그렇게 못 한다 하는 법도 없어요. 그거는 누구나가 다 권리가 있는 거니까요. 못생기고 잘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권리가 적고 권리가 없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체험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디다. 아이, 별안간에 잘되더니만 안되는 게 탁 오길래 '허, 이것 또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없는 것도 법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게 오는구나!' 하고선 딱 굴려서 놓으니까 그냥 그게 싹 없어지고 변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배우지, 안 되는 걸 배우지 못하고는 도가 아니에요. 되는 것도 배우고 안 되는 것도 배우고 또 그 안 되는 거 되는 거를 다 놓고, 또 이 인생길이 바로 도의 길이니까 그 길을 걷는다면 얼마나 좋고 묘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된다 이거를 탓하지 말고, 그러면 된다 된다 이렇게 해도…. 왜,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탁 넘어지면 되게 넘어지면 "엄마!" 하잖아요. 그거와 같아야 돼요. 이게 넘어질 때 그냥 "엄마!" 부르듯이, 급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엄마!" 부르듯이 그렇게 말입니다.

부딪칠 때마다…

질문 : 모든 게 자기 탓이라 하지만 여러 가지 생활고에 부딪칠 때마다 팔자 운명 탓으로 돌려지곤 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여일하게 대처하고 싶은데 아직은 그게 안 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우리가 지금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됐기 때문에 모두 지수화풍을 먹고 살죠? 지수화풍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도 할 수 없어요. 지수화풍 아니었더라면 딛고 다니지도 못해요, 붙어서. 또 만약에 떨어진다 하면 날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안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히 생각해라. 내가 이 세상에 난 것도 감사히 생각해라 이겁니다. 허망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에 났으니까 고생도 하고 아파도 보고 별짓 다 해 보고 별것 다 보고 별생각 다 해 보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내 차원이 높아져요. 그걸 전부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다음 세상에 다시금 내가 나올 때는 정말이지 자유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정을 높이고 우리의 과정을 익히기 위해서, 무르익어서 맛이 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으로 태어난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고생하는 것도 그게 외려 덕이다 이겁니다.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고 어려운 사람을 알게 되고, 죽어 가는 사람을 알게 되고 아픈 사람의 괴로움을 알게 되고, 가난한 사람의 경험을 알게 되고…. 모든 경험을 하기 때문에 지극한 그 마음속에서 용솟음치는 그 용광로는 모든 것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의욕과 그런 능력과 그런 것이 부여된다 이겁니다. 잠시 잠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살 거를 그렇게 그런 것이 언짢다고, 그런 것이 괴롭다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몸뚱이는 가을 잎과 같아요. 가을이 되면 이파리가 낙엽이 져서 떨어지죠. 떨어졌다고 해서 뿌리마저 죽나요? 그렇듯이 인간의 뿌리는 영원한 것이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내 몸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차원을 올리고 내릴 수 있으며 그 경험을, 참 만사 만생의 경험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으리까. 죽어 가는 사람을 볼 수 있으리까. 살아나는 사람을 볼 수 있으리까. 굶는 사람을 볼 수 있으리까. 자기가 그런 경험을 안 해 보고야 어찌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의 뜻을 알겠습니까? 오히려 복된 사람이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되고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세상! 고생을 하고 사는 사람도 한세상, 부자로 사는 사람도 한세상이다 이겁니다. 자기 몸뚱이도 버리고 가는 거를…. 무엇을 바라겠소? 이렇게 살고 한세상 가는 거나 저렇게 살고 가는 사람이나 똑같지마는 고생하고 그 괴로움, 그 모든 것을 보고 그렇게 한 사람은 경험을 많이 얻어서 남을 리드할 수 있고 고생하는 사람 밥을 줄 수가 있고, 고생하는 사람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고, 병고에 휘달리는 사람을 마음으로라도 뜨겁게 생각하고 눈물 흘려 줄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대통령으로도 태어날 수 있어요. 대통령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을 다 쌓아 본 사람들이나 이 세상에 나와서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석존이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에 "너는 석가가 돼라. 그런 재목이 되는구나." 이런 거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거든요. 오늘 없는 내일은 없거든요. 그러니 누구한테 따귀를 맞는다 하더라도 남의 탓을 하지 말라 이거죠. 만약에 언덕이 없다면 소가 가다가 그 언덕에 비빌 수가 없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 언덕이라면 바로 내가 언덕이 있으니까 소가 비볐지 언덕이 없고 평전인데 어떻게 소가 비비고 갈 수 있겠어요?

그렇듯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고비를 그냥, 어려운 아픔을 당하게 되는 이런 문제도 있죠, 많이.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럴 때에 그 상대방 탓이 아니라 내 탓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탓으로 또 그렇게 받을 거고 그건 상관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나한테 잘못한 것도 내가 그 사람 탓을 하지 말고 그걸 상관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건 그것대로 자기가 한 대로 하는 거니까. 아주 영원한 컴퓨터에 탁탁 입력이 돼 들어가니깐 말입니다. 그러니깐 나는 거기에 상관할 거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내가 있는 탓이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탓으로 돌려라. 그래야 모든 게 풍족해지고 물리가 터지고 세상만사를 다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 포용력이, 두 팔을 벌리면 이 우주 천하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생길 때 비로소…. 이 세상에 눈 깜짝할 사이에 늙어 죽어요. 그러면은 얼마 안 가서 이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되죠. 다시 나오게 되면 그때 대통령으로서 출마한다고.

그러니 있고 없는 거, 이런 거? 그 쓰라림을 당하는 거, 잠시 잠깐이에요. 눈 깜짝할 새. 그런데 괜히 왜, 골이 비었나? 걱정 근심하고, 아니 괴롭게 살게? 골 비지 않은 사람은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인제 아시겠어요?

가족이 화합이 안 돼요

질문 : 가족이 화합이 안 됩니다. 특히 고2 되는 큰딸은 가족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또 학교생활도 힘들다고 쉬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야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답변 : 남을 원망하지 말라고 수차 얘기하지만 수억겁을 내려오면서 우리는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엇갈리면서 나온 이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천 년 전, 삼만 년 전이라도 그것은 내 부모였으니깐, 내 자식이었으니까 이것이 오늘이란 말입니다, 오늘.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습니다. 그러는 까닭에 우리가 저 딴 혹성을 가서 볼래도 가서 보는 사이도 없이, 들고 와서 보는 사이도 없이 전체를 볼 수 있다. 그거와 같다 이거 이거죠.

이것이 우리가 정신계를 배우는 건데, 정신계를 배우는 데 정신계만 배우는 게 아니라 물질계와 정신계가 혼합이 돼서 같이 수레가 돌아가듯 하니까 우리는 언제나 같이 둘 아니게 쓴다. 악도 선도 둘이 아니다. 그럼 악은 악대로 악하게 구는데, 만약에 나한테 따귀를 때리고 악하게 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따귀 맞고 한번 관해 주는 거죠, 뭐. '전자에 내가 그 사람을 한번 때려 줬으니깐 맞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분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인연 없다면, 즉 말하자면 자기가 한 일이 없고 받은 일이 없다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남을 해하게 했으니까 나한테 해하게 돌아오지 해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해한 일이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지금은 무섭게, 아주 그냥 무섭게, 알게 모르게 그냥 이 정신을 뺏어 가고 정신을 치고 그러니까 모습도 망가지고 이럭하게 만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깐 그런 사람을 자꾸 이렇게 관해 주면 그냥 바뀌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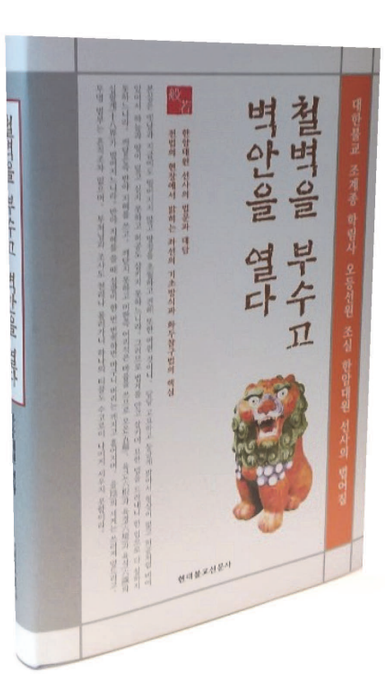
그렇게 해 보세요, 이게 거짓말인가. 바뀌지고 외려 미안해하고 그렇게 돌이켜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악한 대로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선한 사람도 선한 대로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악과 선을 다 놔라. 잘하는 것만이 선이라고 그러지만 잘하는 것만 있다면 나중에 잘못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깐 잘하는 거나 잘못하는 거나 다 놔라. 다 놓고 그 가운데서 너의 결정을 해라. 그 가운데서 너의 결정을 하되 항상 중심을 두고 중도를 택해라. 남을 해치지도 말고 나를 해치지도 말고, 또 일체 부처를 원망하지도 말고, 일체 조상들을 원망하지도 말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가 계셨다면 잘했든 못했든, 그 가정이 가난하든 부자든, 다 성격에 달렸겠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자식들은 얼마나 위하는지 모릅니다. 잘했든지 못했든지 말입니다. 잘해 주든지 못해 주든지 자식을 아주 위하는 반면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억울하다고 부모가 그렇게 해 주는 바람에 내가 참 피곤하다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세대 차이라고 그러지만 세대 차이가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 태어나서 지금 배워서 지금 사는 사람들, 전에 태어나서 전에 살던 습, 습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차이가 나도 그렇게 자꾸 그럭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고 관하면 그렇게 안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이 관하는 도리를 잘 일러 주시고 연방 이렇게 실천을 하게 해 주신다면 돌에 갖다 세워 놔도 살 수 있어요.

> 없는 것을 새롭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 원래 갖추어져 있는데도 여러분이 모르고 못 믿으니까
> 관하라는 거고, 믿으라는 거고, 일체를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 그러니 진짜고 믿고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마음의 등불, 그 황금의 맥을 가리켜 보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선사의 법어집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본심은 옛날과 지금에도 떨어지지 않고 망정을 초월하고 견해 또한 여읜 것이니, 담담 고요하고 둥글게 밝아서 형상이 없고 허공처럼 비어 있어서 하늘과 땅이 덮고 싣지 못하고 허공도 삼키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법계를 안고 삼키며 묘한 법을 드러내니 한 입으로 다 설하지 못하느니라. 깨달은즉 반야 지혜를 쓰고, 깨닫지 못하고 미한즉 어리석은 마음을 쓰므로 오온, 육근과 육경과 육식의 십팔계가 벌어지느니라.
반야 지혜를 쓸 때 섬광이 한 번 번쩍하면 마구니 머리는 깨지고 흩어지며, 음의 세계는 쓰러져 엎드리고, 무명 범부는 흔적조차 없으며, 부처님과 조사도 천리나 물러가니 하나의 티끌도 수고로이 나에게 세우지 못함이라. —본문 중에서

* 한암대원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350쪽 | 값 19,000원



한암대원閒庵大元 선사

1942년 경북 상주 출생. 1958년 상주 남장사로 출가하여 혼해 · 고봉 · 석릉 · 관응 · 호경 스님 등으로부터 일대시교를 이수한 후 혼해(混海)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음. 그 후 상원사 · 동화사 · 해인사 · 불국사 · 통도사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정진.
고암(古庵) 스님으로부터 전법.
1986년 옛 제석사 터에 학림사를 세우고 납자를 위한 오등선원과 일반 불자들을 위한 시민선방을 열어 현재 선불교 대중화에 진력.

일년 365일 죽비소리가 그칠 날이 없는 충남 공주의 학림사 오등선원. 하루도 빠짐없이 화두와 씨름하면서 '길 없는 길'을 찾아가는 공부인들에게 등불을 밝혀 길을 안내하는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선사.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황금의 법맥을 따라 올라가면 석가 세존에까지 이르겠지만 푸른 지구의 동쪽 끝, 한반도의 오늘을 밝히고 있는 법맥 중에서도 계룡산 학림사 오등선원은 조실 스님으로 인하여 중요한 한 가지[技]를 차지한다. 스님은 "홀연히 잣나무 꼭대기에서 손을 놓고 한걸음 나아가라는 말을 듣고 / 확연히 의심 덩어리 녹아 깨달았네. / 밝은 달은 홀로 드러나고 맑은 바람은 새로운데 / 늠름히 비로자나 이마 위를 활보함이로다."라고 깨달음의 기쁨을 읊으셨다.

현대불교신문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606호) 주문전화 042)825-1724, 02)2004-8253 학림사 오등선원 충남 공주시 반포면 제석골길 67 전화 042-825-1724